

01. 다음 중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된 문장은?

(v는 띄어쓰기를 포함한다.)

- ① 그곳은v아직v한v겨울이라v날씨가v좋지v않았다.
- ② 요즘v풀을v뽑고v마당을v늘리는v일에v재미가v붙었다.
- ③ 그v아이는v헬썹한v얼굴로v침대v위에v누워v있었다.
- ④ 모인v사람의v수는v견잡아도v100명은v충분히v넘어v보였다.
- ⑤ 이것은v머리v아픈데v먹는v약이야.

정답 ②

해설 ② '늘리다'는 덧붙이거나 이어 길게 하거나 많게 한다는 의미이고, '늘이다'는 정해져 있는 길이에 서 잡아당기거나 어떤 압력을 주어 길게 한다는 의미이다. 마당을 늘리는 것은 '공간을 더 많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마당을 늘리는'으로 쓴 것은 바른 표현이다.

- ① '한겨울'은 '한창'을 뜻하는 접두사 '한-'과 명사 '겨울'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붙여 써야 한다.
- ③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는 '헬썹하다'와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파리하다.'는 뜻의 '해썹하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헬썹하다' '해썹하다' 외에는 모두 잘못 쓰이는 말이다. 발음이 비슷해 '헬썹하다(x)' '헬썹하다(x)'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 ④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말은 '겉잡다'이고,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는 말은 '견잡다'이다. 이 문장은 문맥으로 보아 수를 헤아리는 것이므로 '겉잡다'로 쓰는 것이 옳다.
- ⑤ '데'가 '장소, 일, 경우' 등의 의미로 쓰이면 의존명사이므로 이 말을 수식하는 앞의 관형어와 띄어서 '머리v아픈v데'처럼 띄어 쓴다. 그러나 '머리가 아픈데 약은 먹기가 싫다.'처럼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앞 절에서 미리 말할 때에는 붙여 쓴다.

02.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그 일은 하루 이틀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② 중요한 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구가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다.
- ③ 형은 무엇보다 야구를 좋아했고, 나의 취미는 축구였다.
- ④ 열차가 서서히 도착하고 있었다.
- ⑤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정답 ①

해설 ②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오류가 있는 문장이다. 서술부는 '변해 있었다'인데, 주어부는 '중요한 것은'이다. '중요한 것은'과 호응하는 문장이 되려면 '말할 내용 +라는 것이다' 또는 '말할 내용 +라는 점이다'가 와야 한다.

- ③ 문법상 대등구조에 어긋난 경우의 문장이다. '-고'나 '-며' 등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쓸 때에는 접속되는 두 요소가 같은 성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문장은 서로 다른 절이 병렬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색하다. '나는 야구를 좋아하다'와 '형은 축구를 좋아하다'로 고친 후 연결해야 한다.
- ④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 '도착하다'는 이미 행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완료상

이다. 그런데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는 진행상인 '-고 있다'가 바로 뒤에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도착하고 있다.'처럼 쓰는 것은 알맞지 않으며, '도착했다'와 같이 써야 한다.

⑤ 수식을 하는 '여자의'가 '아름다움'을 꾸미는지 '관심'을 꾸미는지 모호하다. 이 문장은 수식어를 피수식어 바로 앞에 놓아 '아름다움에 대한 여자의 관심' 정도로 고쳐야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 03. 다음 중 외래어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모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워크샵(workshop), Seodaemun-gu(서대문구)
- ② 팸플릿(pamphlet), Cheonglyangli(청량리)
- ③ 슈퍼마켓(supermarket), Youngdungpho(영등포)
- ④ 심포지움(symposium), Gyeongbokgung(경복궁)
- ⑤ 앙케트(enquete), Biwon(비원)

정답 ⑤

해설 ① 'workshop'의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으면, '워크숍'과 '워크샵' 두 가지로 표기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영어 외래어의 표기는 영국식 영어를 주로 채택하고 있어, 'workshop'을 '워크숍'으로 적는다.

② 로마자 표기법은 전자법을 따르지 않고 전음법을 따른다. '청량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실제 발음인 [청냥니]를 적어야 한다. [청냥니]를 로마자로 옮기면 Cheongnyangni가 된다.

③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으로 쓰이는 음운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개이다. 따라서 가정용품을 갖추어 놓고 대량 판매를 하는 큰 소매점을 이르는 'supermarket'은 '슈퍼마켓'으로 써야 한다. 또 영등포의 로마자 표기는 'Yeongdeungpo'가 맞다.

④ symposium은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여 '심포지엄'으로 쓴다.

### 0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뭐라고?”라고 물었다.
- ② 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 ③ 차가 끊겨 걸어 갈 수 밖에 없었다.
- ④ 사과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다니.
- ⑤ 말로만 큰 소리 친다.

정답 ①

해설 ① '라고'는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적는다. 그러나 인용 조사 없이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문장 뒤에 쓰여, 인용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하고'는 동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적는다.

② '뿐만'이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일 때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뿐만'은 보조사 '뿐만'에 다시 보조사 '만'이 붙은 것으로 '너뿐만'처럼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③ '걸어가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의존 명사 '수' 뒤에 오는 '밖에'는 '그것뿐이다'라는 의미의 조사이므로 '수밖에'처럼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밖'이 바깥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명사인 '밖'

과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결합한 것으로 (예\_대문 밖에) 띄어 써야 한다.

④ '는'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커녕'도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사과는커녕'처럼 붙여 써야 한다.

⑤ '남 앞에서 잘난 체하며 뺨심 좋게 장담하거나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진 '콘소리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05. 다음 중 어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ㅎ중성체언'은 뒷말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 ② 한자어와 한자어 형태소 사이에 사이소리가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 ③ 퇴간(退間), 회수(回數)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④ '입때'는 이+때→이ㅂ때로 분석된다.
- ⑤ 순우리말 합성어로써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일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한자어'의 경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러나 두 음절로 된 다음 합성어 (예\_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는 한자어 중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러므로 텃간(退間), 횡수(回數)가 옳은 표기이다.

① 'ㅎ중성체언'은 중세 국어 시기에 체언과 조사가 결합될 때 'ㅎ'이 덧붙는 어휘를 말한다. 이런 영향이 현재 쓰이는 말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암,수,안,머리,살' 등이 바로 그런 어휘들이다. 예를 들어 암탉(암ㅎ+닭), 수평아리(수ㅎ+병아리), 안팎(안ㅎ+밖),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등이 있는데, 이 어휘들은 뒷말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②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와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의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만 '한자어'의 경우 (여섯 개를 제외하고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④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중세국어 표기에 나타난다. '뻬'는 'ㅼ'계의 어두자음군으로 후에 'ㅂ'이 앞말의 끝으로 내려가서 '이+뻬'가 '입때'가 되었으므로 '여태'의 뜻을 가진 '입때'를 '이ㅂ때'로 분석한 것은 옳다.

## 06. 다음 중 맞춤법의 표기가 옳게 된 것끼리 짝지은 것은?

- ① 솔직히, 넝쿨, 우레, 삼가다
- ② 오독이, 육개장, 널빤지, 깡소주
- ③ 구레나룻, 오랜만, 햅쌀, 어리숙하다
- ④ 일찍이, 멧쟁이, 곱배기, 오순도순
- ⑤ 늘그막, 딱따구리, 오독이, 넓다랗다

정답 ①

해설 ② 안줏거리가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술만 마셔 땀을 나타낼 때에는 '깡소주(x)'가 아닌 '강소주'를 써야 한다. 이때의 '강'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반면 '깡'은 '악착같이 버터'

나가는 오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깡다구'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③'어리숙하다(×)'는 '어리석다'와 형태가 비슷해 많이 잘못 사용하는 단어다. '말이나 행동이 매우 순되고 후하다, 되바라지지 않고 매우 어리석은 데가 있다, 제도나 규율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느슨하다'를 뜻하는 바른말은 '어수룩하다'이다.

④ 음식에서, 두 그릇의 몫을 한 그릇에 담은 분량을 이르는 말은 '곱빼기'이다. '곱빼기'는 '곱' 뒤에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빼기'가 붙은 것이므로 '곱배기(×)'가 아닌 '곱빼기'로 써야 한다.

⑤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는 경우,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음을 원칙으로 하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넙따랗다'는 '넙-'의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07. 다음 기사에서 ( )안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 TV시장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서터안경식 3DTV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과 손을 잡았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로컬 TV 브랜드인 창홍, 하이얼을 포함해 3DTV연맹 결성식을 가졌다. 참여업체 면면을 보면, 5년째 세계 TV시장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아날로그 TV 시장의 제왕 소니, LCD TV 원천특허 보유업체인 샤프, PDP시장의 제왕 파나소닉 등 TV사업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TV브랜드들이 한 데 뭉친 셈이다. 3DTV 시장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여왔던 맞수 기업들이 ( )하는 형국이다. 3D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이번 삼성전자 주도의 3DTV연맹은 무엇보다 LG디스플레이 주도로 지난해 말 LG전자, 비지오, 도시바, 필립스 등 10여 개 TV제조사가 필름패턴편광안경식(FPR) 3DTV 연합전선을 구축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 ① 類類相從      ② 同病相憐      ③ 臥薪嘗膽      ④ 我田引水      ⑤ 吳越同舟

정답 ⑤

**해설** 시장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여왔던 맞수 기업들이 연맹 결성식을 가졌다는 신문의 기사에 적용할 수 있는 한자성어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이다. 이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 관계인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와 월나라의 왕 구천(句踐)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①'유류상종(類類相從)'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뜻이다.

②'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③'와신상담(臥薪嘗膽)'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8~9)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  
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  
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손에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다

08. 위 시에서 두꺼비의 원관념은?

- ① 애완동물 ② 동생 ③ 자전거 손잡이 ④ 아버지의 양손 ⑤ 겨울잠

정답 ④

해설 두꺼비는 ‘아버지의 양손’을 비유한 말이다. 울퉁불퉁한 피부와 두꺼운 몸집이 두꺼비에 비유된, 막일판에 나가시는 ‘아버지의 손’이다. 아버지는 노동으로 인해 거칠어진 손을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고, 자전거를 타실 때는 ‘손잡이에 올려놓으셨다. 이 시는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미학적으로 견고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09. 위 시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환기하는 시어는?

- ① 두꺼비 ② 막일판 ③ 손잡이 ④ 헌집 ⑤ 겨울잠

정답 ⑤

해설 아버지의 죽음을 환기하는 시어는 ‘겨울잠’이다. ‘겨울잠’에 들어갔지만 봄이 되어서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시구에서 ‘죽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지금 시적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그리움이다. 이 시는 정확한 관찰력으로 시적 화자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① 언어변화는 결국 접촉에 의해 진행되는 현상이다.
- ② 연령층으로 보면 대개 젊은 층이 언어변화를 주도한다.
- ③ 접촉의 형식은 언어변화에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 ④ 매체의 발달이 언어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⑤ 언어변화는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곳일수록 그 속도가 느리다.

정답 ③

**해설** 완결된 글의 어느 부분을 생략하고, 그 생략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형식이다. 생략된 부분이 글의 앞 부분이므로 첫 문장에 주어진 내용을 파악하면 된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과 '매체를 통한 접촉'을 제시한 후 이 두 가지의 '접촉' 중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글의 정보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를 분석하면 앞 부분은 '접촉의 형식'을 뒤 부분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략된 정보는 '접촉의 형식은 언어변화에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가 된다.

## 1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절대절명의 순간 그를 구한 것은 옛 친구였다.
- ②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30년 전 홀홀단신 고향을 떠나셨다.
- ④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다.
- ⑤ 식구들을 이끌고 그는 고향에서 몰래 야밤도주를 했다.

정답 ②

**해설** '삼수갑산'은 조선 시대에 귀양지의 하나였던 삼수와 갑산을 이르는 말로, 매우 힘들고 험난한 곳으로 가거나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는 뜻이다.

- ① '절대절명(x)'은 '절체절명'의 잘못이다. '절체절명(絶體絶命)'은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홀홀단신(x)'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이라는 뜻을 지닌 '헐헐단신(孑孓單身)'의 발음을 혼동해서 잘못 쓰고 있는 말이다. '헐헐(孑孓)'이란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다는 뜻이다.
- ④ '풍지박산(x)'은 '사방으로 날아 흩어진다는 뜻의 '풍비박산(風飛雹散)'의 잘못된 말이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풍비'와, 우박이 흩어진다는 '박산'을 합친 말이 '풍비박산'이다.
- ⑤ '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망함'의 뜻을 지닌 말은 '야밤도주(x)'가 아니라 '야반도주(夜半逃走)'이다.

13. 다음은 어느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 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① 이 소설의 작가는 <봉별기>, <종생기>, <지주회시> 등의 소설을 썼다.
-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했다.
- ③ 이 작품은 1930년대에 발표된 풍자소설이다.
- ④ 이 소설은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이다.
- ⑤ 이 소설 작가는 해학성과 토속성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따뜻한 인간애와 함께 날카로운 사회적 통찰력을 보여준다.

정답 ①

**해설** 이 작품은 '이상'의 <날개>로 자아의 내면적 고독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해부하고 있는 소설이다. 나와 아내의 전도된 관계, 몽롱한 의식의 상태를 해매고 있는 나, 아내의 방과 철저히 격리된 나의 방, 그리고 나의 외출과 방황, 날개에 대한 환각 등과 같은 암시적인 요소들을 통해 분열된 자의식이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봉별기>, <종생기>, <지주회시>는 모두 이상의 작품이다.

②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③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 기법에 의한 심리주의 소설이다.

④ 이 소설은 무의식의 탈출구 모색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⑤ 이 소설의 작가인 이상은 분열된 자의식과 현실의 고통, 지식인이 느끼는 좌절을 파격적 형식과 난해한 문체로 표현했다.

14. 다음 두 시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분명히 입성인걸, 하염없이 앓은 이몸  
한자락 하늘끝에 머흐는 구름인걸  
목숨이 입었다 잠시 벗어두고 가지만  
(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① 주지주의적인 시이다.
- ② 제재는 하늘이다.
- ③ 인생에 대한 관조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 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였다.

정답 ③

해설 (가)는 김상옥의 '몸'이고 (나)는 천상병의 '귀천'이다. 김상옥의 시에서는 몸이란 인생을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라는 인생에 대한 초월적 자세가 나타나 있고, 천상병의 시에서는 집착을 버리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달관의 세계가 나타나 있으므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인생에 대한 관조'이다.

15. 고전시가 중 하나인 '정음사(井邑詞)'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백제시대에 창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②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고 있다.
- ③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가요다.
- ④ 주술성을 지녀 집단적으로 불려졌다.
- ⑤ 고려시대에 속요로 불려졌다.

정답 ④

해설 정음사는 유일하게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 백제의 노래로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속악의 가사로 불리다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노래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정음의 한 행상인이 행상하러 나갔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며 혹시 밤길을 가다가 해를 입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지어 부른 노래라고 한다.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나 '어귀야' 등의 여음을 사용하고 있어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가요 중 주술적 특성을 가지며 집단적으로 불린 노래는 '구지가'이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고달기 발연 낮빛이 변하며 머리를 흔들고 눈을 찔룩대며 붉으락 푸르락 눈을 간간조롭하게 뜨고, 눈썹이 꽃꽃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뽀드득 뽀드득 갈며, 온몸을 수숫잎 틀 듯하며, 매 꿩 채는 듯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말이오!” 왈각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버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서, “무엇이 어찌고 어째요? 이것도 쓸 데 없다!” 명경, 체경, 산호죽절을 두루쳐 방문 밖에 탕탕 부딪치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치고 돌아 앉아 자탄가로 우는 말이...

- ① 인물의 행동모사를 통해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차림새를 묘사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생활방식을 들어서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생김새를 묘사하여 그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 ⑤ 인물이 가장 살림살이 등을 들어 그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고대소설 춘향전 중 일부로 이몽룡이 떠난다는 말에 춘향은 자기 치마를 찢고 머리를 쥐어뜯어서 이몽룡 앞에 던지기도 하고 거울과 비녀를 내던지며 대성통곡을 한다. 이별의 상황 앞에서 분개하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인물의 행동 묘사가 중심이며 이를 통해 이별을 대하는 적극적이고 솔직한 인물의 성격을 볼 수 있다.

17. 다음 문장 속에서 사용된 한자어가 옳은 것은?

- ①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障害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 ② 절대 큰 꽃 장식은 謝絶입니다.
- ③ 격조와 稟議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 ④ 채권자가 적절한 채무 移行을 청구함.
- ⑤ 십만 원에 上堂하는 상품을 받음.

정답 ②

해설 ‘사절(謝絶)’은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양하여 물리친다는 뜻으로 사전에서 “아버지는 대문 옆에 ‘신문 사절’이라고 크게 써 붙였다.”와 같은 용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꽃 장식 사절’은 적절한 한자어이다.

① ‘장애(障礙)’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거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등을 뜻한다. ‘장해(障害)’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일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줄 때라면 ‘장해’를 쓰는 것이 낫지만, 심신상의 결함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므로 ‘장애(障礙)’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③ ‘품위(品位)’는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 또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뜻하고, ‘품의(稟議)’는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쭙어 의논하는 일을 말하므로 ‘공간’과 어울리는 한자어는 ‘품위(品位)’이다.
- ④ ‘이행(履行)’ 일을 실제로 행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뜻하고, ‘이행(移行)’은 다른 상태로 옮겨간다는 뜻이므로, ‘채무’의 내용에 적절한 한자어는 ‘이행(履行)’이다.
- ⑤ ‘상당(相當)’은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할 때 쓰는 말이고, ‘상당(上堂)’은 선종의 장로나 주지가 법당의 강단에 올라가 설법하는 일을 말한다. ‘상당(相當)’이 적절한 표기이다.

18. 다음 중 현대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혼나 젊어 있고 님 혼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平生(평생)애 願(원)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늙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쳐 廣寒殿(광한뎌)의 올낫더니,  
 ㉤그더디 엇디호야 下界(하계)에 내려오니,

- ① ㉠이 몸이 태어날 때에 임을 따라 태어나니  
 ② ㉡나 혼자 젊어 있고 님은 홀로 나를 괴로이 여기시니  
 ③ ㉢평생애 원하되 임과 함께 살아가려 하였더니  
 ④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워 하는고?  
 ⑤ ㉤그동안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왔는가?

정답 ②

해설 ‘괴시니’는 ‘사랑하시니’의 뜻이다.

이 글은 정철의 ‘사미인곡’으로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남편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현대어 풀이는 다음과 같다.

이 몸이 태어날 때에 임을 따라서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 다 아는 천생 연분이다.) 나는 오직 (임만을 위하여) 젊어 있고 임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없다. 평생에 원하되 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는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엇그제(얼마 전에)는 임을 모시고 광한전(궁전)에 올라 있었는데, 그동안 어찌하여 속세[고향인 전남 창평(昌平)]을 이리[여]에 내려왔는가?

19. 다음 글을 쓴 지은이의 목적은?

삼가 생각건대 공경을 바치고 예를 다하는 것은 임금의 이에 스승을 얻는 것이요, 어진 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돕는 바입니다.  
신이 전번에 운명(綸命)을 받들어 오래도록 서연에서 모셨는데, 거지(擧止)가 우소(迂疏)하여 죽히 잘못을 바꾸지 못하였고, 견문(見聞)이 거칠어서 올바르게 바꾸는 데에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신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차마 속이겠습니까?  
하물며 백발은 성성하고 눈까지 어두움에리까! 귀는 허승(許丞)처럼 어둡고 팔뚝은 두자(杜子)처럼 불수가 되었습니다. 현지를 사모하다가 진실로 상유(桑榆)의 늦은 햇빛을 거두지 못하면, 구렁에 굴러 떨어져 송백(松柏)이 겨울에 푸른 절개를 보전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 ① 나이 어린 임금에게 완곡하게 진언하기 위해
- ②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기 위해
- ③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 ④ 늙고 병든 신세를 하소연하기 위해
- ⑤ 벼슬아치의 도리에 대해 충고하기 위해

정답 ③

**해설** 동문선에 실려 있는 '익재공의 표(表)'로서 익재 이제현의 글로 '어진 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익재공이 안축과 이곡을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내용인데,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썼다.

운명(綸命): 임금의 명

거지(擧止): 행동거지.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

우소(迂疏): 세상 물정에 어둡고 민첩하지 못하다

현지: 임금이 있는 전각앞의 뜰. 여기서의 임금을 가리킨다.

상유(桑榆): 저녁 해가 뽕나무와 느릅나무 위에 걸려 있다는 뜻으로, 해가 질 무렵을 이르는 말. 노년이나 만년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20.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몽의 신이한 잉태는 신이한 출생으로 이어진다. 알로 태어난 까닭에 주몽은 버려지는 시련을 겪는다. 영웅이나 신화의 주인공이 어릴 적에 거치는 시련의 과정은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것이다.(중략) 버려진 영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련을 겪지만 으레 새와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 구원자에 의해 양육되어 비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주몽도 마찬가지이다. 알의 상태로 태어난 주몽은 개와 돼지에게 던져지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길거리와 들판에 내버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와 돼지가 먹지 않았고 길에서는 소와 말이 피해갔으며, 들에서는 새와 짐승들이 오히려 알을 보호해 주었다.

- ① 설화문학의 하위갈래에 속한다.
- ② 상징의 언어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 ③ 새로운 것에서 시작을 두는 이야기
- ④ 일상적 현실과 원리를 초월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 ⑤ 증거물을 근거로 진실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정답 ⑤

**해설** 설화의 하위 갈래로 신화, 전설, 민담을 들 수 있는데, 전승자의 태도에 따라 각각 신성성, 진실성, 흥미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중에서 신화는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서 신성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며, 증거물이 매우 포괄적이다. 제시문은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방대한 신화소로 엮은 이야기이다. ⑤의 바위, 연못 등의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며 진실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전설'이다.